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인성을 변화시킵니다!



자연을 닮은 마음, 쓱~쓱!

▣ 개발배경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은 1971년 11월17일 국립공원으로 는 8번째로 지정되었다.

최근 사회전반에 시민 및 청소년의 일탈 및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발효, 시행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숲이나 산 등 자연에서의 청소년활동이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 및 보고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북한산생태탐방원수원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 목적

어린이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자연과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예절, 존중, 협동, 책임 등 인성의 8가지 덕목을 기르고, 사회성 및 자아역량 향상에 좋은 효과를 기대한다. 더불어 자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유망한 일자리인 녹색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가. 생물의 다양성, 공생 관계, 생태계에서 아무리 작은 생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 등 많은 자연이야기를 통해 생명 존중, 배려 등 인성덕목¹⁾을 배운다.

나. 국립공원의 역할과 소중함을 알고 자연환경에 대한 소양을 쌓는다.

다. 모둠별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사회성과 협동심, 공감능력 등을 배운다.

▣ 교수.학습 방법

가. 초등학생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기 전이므로 창의력을 보다 쉽게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집중 시간은 짧으나 기억력이 우수하다. 따라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자연놀이 및 질문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답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한다.

나.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그 차시의 주제인 인성덕목에 유의하여 운영한다.

1)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 산책 시 질서 지키기 , 자연물을 소중히 하기, 자신 있게 발표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기 등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
- 라. 프로그램 진행 시 안전에 유의한다.

▣ 전체구성

차시	일정 내용
1	[약속_꼭, 꼭 약속해] 국립공원에서의 아름다운 행동
2	[책임_나도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운 국립공원 사람들
3	[존중_생명은 모두 소중해요] 씻, 들어 보아요
4	[소통_친구와의 관계, 더 돈독하게] 재미있는 바위이야기
5	[책임_깨끗한 물은 내가 지킨다!] 고마운 물
6	[배려_함께 배려해요] 물 속 생물 이야기
7	[협동_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요] 모두 함께 힘을 모아요
8	[효_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동물들의 자녀 사랑, 효사랑
9	[정직_믿음을 주는 사람] 마음을 가꿔요
10	[책임_소중한 생명 끝까지 책임져요!] 내 특별한 친구를 소개 합니다. - 까막딱따구리이야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앨범 만들기

▣ 평가

- 가. 진행 단계별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나.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활동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소통, 협동 등을 평가한다.
- 다. 공인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전, 후 참가자 효과성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변화를 평가한다.
- 라. 참가자 및 담임교사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국립공원에서의 아름다운 행동

(꼭, 꼭, 약속해)

활동장소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소요시간 | 80분
 참가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국립공원의 자연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을 안다.
- 해설사와 학생들 간의 인사, 친구들 간의 인사로 친근감을 형성한다.
- ‘약속’을 통해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 시 정해진 규칙을 안다 .

관련교과

- 봄, 안전한 생활

준비물

- 현수막, 땅에서 주운 열매 등 자연물, 약속나무그림, 스탬프세트, 물티슈

유의사항

- 자연놀이 시 자연물을 꺾거나 따지 않고 주워서 활용하도록 주의
- 약속나무 만들기 시 옷이나 친구의 얼굴 등에 함부로 찍지 않도록 주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명찰 나눠주며 인사하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 할 수칙 공유) 	10분
전개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에서의 아름다운 행동 알려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일까요? • 자연물로 내 얼굴 만들어 내 이야기 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꽃 자연해설 - 떨어진 나뭇가지, 열매, 나뭇잎 등으로 내 얼굴 만들어서 발표하고 칭찬해주기 • 반별 캔버스 위 약속나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을 꺾지 않을 거예요’ 등 여러 가지 약속을 적은 나무에 손가락도장 찍기 	5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 활동내용 및 ‘약속’에 대한 개념 정리 • 반별로 현수막 들고 기념사진 찍기 	20분

세부내용

국립공원에서의 아름다운 행동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 장성군 백암산과 입암산은 국립공원입니다. 저기 보이는 봉우리가 백학봉으로 국가명승 38호입니다. 참 멋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이곳에 보물을 몇 가지 숨겨 놓았어요.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할 텐데, 이 구역에서 돌 아래나 나무 아래 등 살펴보고, 보물을 찾아오세요. (찾아온 후) 000이 주워온 것은? 오, 비단벌레,네, 이렇게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는 진노랑상사화 등 보물이 많아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보물들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꽃과 식물이나, 곤충과 같은 동물은 우리의 친구이니, 꺾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둘째, 쓰레기가 있으면 잘 썩지 않아 산이 힘들어 해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은 물론 쓰레기가 보이면 내가 먼저 주워요. 셋째, 산에 있는 돌이나 문화재 등에 낙서하면 안 되겠죠! 넷째, 돌이 예쁘다고 가지고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연은 돌맹이 하나라도 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멋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봐야 하겠죠!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는 아무리 예뻐도 꽃 한 송이 돌맹이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답니다.

자연물로 내 얼굴 만들어 이야기하기

(봄까치꽃, 별꽃, 꽃마리, 단풍나무, 제비꽃, 맥분동 등 화단 앞 꽃들의 꽃 이름 알려주고 해설) 꽃들이 작는데, 자세히 보면 더 예쁘죠! 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떨어진 나뭇가지, 나뭇잎 등,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 까지 열심히 일하고 떨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엔 우리 이 자연물로 나의 얼굴을 만들게요. (자연물로 얼굴을 만든 후)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내 얼굴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야기를 들은 후 칭찬한가지 해주고 다른 친구들과 다 같이 박수를 쳐준다) 아까 선생님과 함께 본 꽃을 더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들으니 더 예쁘고 소중한 거처럼, 오늘 친구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고 들어보니, 친구들이 더 소중한 지지요!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끼리 한 해 동안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약속해요! 이제 주워온 자연물은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게요. 1분 즐기요, 시작!



반별 캔버스 위 약속나무 만들기

오늘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살펴보았어요. (약속나무의 약속을 한 가지씩 읽어 주기) 이제 우리 친구들 한명, 한명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것에 손가락 도장을 찍을게요. 우리 번호순으로 줄을 서볼까요? 이제 한명씩 찍고 갈게요. 손가락 도장을 내 옷에, 그리고 친구의 얼굴에 찍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네, 안되겠죠, 잘 안 지워져요. (다, 찍은 후) 우리 이렇게 약속한 거 잘 지키기로 해요.

마무리

여러분! 우리 오늘 자연과, 그리고 선생님과 약속을 해 보았어요. 그럼, 약속이란 뭘까요? 자기가 말할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시에 친구와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약속 했어요. 그럼 우린 몇 시까지 놀이터에 가야하죠? 두 시까지 가야 하죠~ 또 엄마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엔 내가 치운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장난감을 누가 치워야 할까요? 그렇죠~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치워야겠죠?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것.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함께 배운 약속을 잘 지켜서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우리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전부 들어 볼까요?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도장 꾸욱!



▲ 자연물로 내 얼굴 만들어 내 이야기 해주기



▲ 약속나무 만들기

자랑스러운 국립공원 사람들

(나도 할 수 있어요)

활동장소 |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소요시간 | 80분
 참가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 10명~20명/해설사1명

- 활동목표**
- 안전관리전문가, 동물학자, 식물학자를 체험하며 어떤 직업인지 안다.
 - 국립공원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해내기에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유지됨을 알고, '책임'의 중요함을 안다.
- 관련교과**
- 봄, 우리나라, 안전한 생활
- 준비물**
- 현수막, 국립공원 직원 교보재, 깃털 등 동물흔적들, 포스트잇, 등
- 유의사항**
- 체험 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 동물흔적이나 식물 관찰 시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1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10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은 누가 지킬까요? - 국립공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 미션1. 동물학자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학자가 되어 동물흔적 찾아, 야장에 적어 보기 - 동물학자의 보람, 어려움, 책임 소개 • 미션2. 식물학자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학자가 되어 식물해설을 듣고, 좋아하는 식물의 그림을 그려보기 - 식물학자의 보람, 어려움, 책임 소개 • 미션3. 안전관리전문가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방객 구조와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전문가의 보람, 어려움, 책임 소개 •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두의 노력으로 국립공원은 지켜진다. 	5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및 '책임'에 대한 생각나누기 • 반별 현수막 들고 기념사진 찍기 	20분

세부내용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듣기

국립공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백암산에서 만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 듣기) 네, 친구들이 본 데로 국립공원 직원들은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친 분들이 있으면 응급처치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자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텐데, 동물, 식물을 관찰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경찰처럼 잘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순찰도 해요. 그리고 산불이 나면 산불을 끄구요, 헬기 조종사, 동물들의 병을 고치는 수의사, 바닷가 속에서 바다 생물을 관찰하는 해양학자, 바다의 배를 조종하는 선박기관사, 항해사, 역사학자, 기후변화 전문가, 홍보전문가 등 국립공원을 지키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동물학자, 식물학자, 안전관리전문가가 어떻게 국립공원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역할 나누기

자, 오늘 미션 3가지를 하기 전에 각자의 역할을 정할 거예요.(10명을 2명씩 역할(총5팀)을 정한다.) 먼저, 지도를 볼 친구? 눈을 크게 뜨고 미션마크를 찾아서 미션을 크게 읽어줄 친구? 그리고 도감을 찾아볼 친구? 종이에 기록할 친구?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줄 친구? 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책임지고 잘 해 주어야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출발!!

미션1. 동물학자 체험

네, 잘 찾았어요. 미션을 읽어봅시다. 미션을 크게 읽어주기로 했던 친구, 읽어볼까요? “똥, 깃털, 발자국과 같은 동물 흔적을 찾아라.”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주변에서 동물흔적을 찾아볼게요. (1구간(뱀허물 쌍살벌집, 너구리발자국, 오색딱따구리 깃털, 고라니똥, 까마귀 깃털) 2구간(까치깃털, 토끼똥, 뱀허물, 너구리똥, 고라니발자국)을 찾은 후, 종이에 적도록 하고, 동물해설) 네, 지금 이렇게 동물학자가 되어 흔적을 찾아 모니터링을 해보았어요. 국립공원 동물학자는 이렇게 야생동물 모니터링도 하고,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해 관찰도 하고, 야생동물 치료, 유전자 연구, 반달가슴곰이나 여우처럼 멸종위기 동물을 복원하는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중 260일은 현장에 출동하여 눈이오나 비가오니 반달가슴곰이나 산양, 여우를 찾아다니며 구조하고 추적하고 있어 힘은 들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해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생태계가 지켜지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에요.

미션2. 식물학자 체험

네, 두 번째 미션도 잘 찾았네요. 미션을 크게 읽어주기로 했던 친구, 읽어볼까요? “식물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드는 식물 그림그리기” (주변의 식물에 대한 해설 후) 자, 오늘 선생님이 들려준 식물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식물들을 찾아가 잎의 모양을 그려보세요. 잎이 다 똑같아 보여도, 이렇게 그리고 보니, 하트모양, 물방울 모양, 손가락 모양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잎이 있지요! 식물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르게 보이듯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더 자세히 알아갈 때마다 새롭고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좋은 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같은 반이 된지 얼마 안 되어 서로 잘 모르지만, 앞으로 친해지면 서로 잘 챙겨주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물학자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국립공원의 식물학자는 식물을 모니터링하고 사라질 뻔한 식물을 복원하는 일도 합니다. 묵묵히 식물을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녀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평소에 보지 못한 식물을 발견하면 어떤 보물을 찾은 것보다 더 큰 보람을 얻는 직업이에요.

미션3. 안전관리전문가 체험

네, 세 번째 미션도 잘 찾았어요. 미션을 크게 읽어주기로 했던 친구, 읽어볼까요? (스트레칭,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체험), 사행시 들어보기. 어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튼튼히 해야겠죠! 이렇게 안전관리전문가들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응급처치도 할 줄 알아야하고,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조해야 하니깐요.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끄고 하며 탐방객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국립공원 안전관리전문가들은 위험한 절벽을 오르기도 있고, 눈이 많이 쌓인 곳을 헤치며 힘들 때도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구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드릴 때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국립공원에 동물학자, 식물학자, 안전관리전문가를 체험했지요! 각자의 맡은 일을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해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이렇게 잘 보존되고,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이야기 듣기) 네, 맞아요, 친구에게 빌려온 책을 깨끗이 보고 읽고 나서 바로 돌려주는 것, 축구시합을 할 때 자기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잠자기 전에 다음 날 학교 준비물을 잘 챙겨 놓는 것, 바로,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실이나 집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있는 친구 있나요? (대답듣기) 네, 모두 책임지고 하는 일이 있네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도록 해요!



▲ 안전관리전문가 체험(하임리히법)



▲ 안전관리전문가 체험(심폐소생술)



▲ 동물학자, 식물학자 체험



▲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씻, 들어보아요

(생명은 모두 소중해요)

활동장소	학교~백양골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자연을 느낀다.
- 작은 곤충도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생명존중' 인성계발에 도움을 준다.

관련교과

- 여름, 우리나라, 안전한 생활

준비물

- 현수막, 사는 곳에 따른 동물의 흔적 교보재, 페로몬 자연놀이 준비물, 관찰통, 핀셋, 곤충도감 등

유의사항

- 작은 곤충이라도 헤치거나 아프게 하지 않도록 유의
- 곤충을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지난 시간 이후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소리를 들으러 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감고 들리는 소리를 말로 흉내 내어 보기 - 곤충의 소리 들려주기 • 개미는 냄새로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미의 페로몬 활용하기 - 개미의 냄새길 그리기(자연놀이) • 무당벌레, 개미, 진딧물은 무슨 관계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미와 진딧물은 서로 돕는 친구 • 생태계에서 곤충의 소중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은 꽃을 결혼시켜요 - 나방이 하는 중요한 역할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및 '생명존중'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주변정리 및 손 씻기 	5분

세부내용

자연의 소리를 들으러 가자

눈감고 들리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계곡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또 무엇이 들리나요? 자연의 소리는 참 많지요! 여름이 되면, 이 숲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게요(매미울음소리 들려주기, 귀뚜라미 소리 등) 네, 오늘은 선생님과 곤충에 대해 알아보게요. 오늘 이 마을길을 걸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 이 여름에 어떤 곤충들이 부지런히 먹이를 잡고, 집도 만들기도 하는지 찾아봅시다.

개미는 냄새로 말한다.

개미가 줄지어 먹이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장면, 본 적 있나요? 먹이가 있는 곳은 개미들이 어떻게 알고 다시 가는 걸까요? (페로몬을 따라가서 사탕을 집어오는 자연놀이) 이렇게 개미들은 먹이가 있는 곳은 콩무늬를 대고 앞으로 가며 페로몬을 묻혀서 표시를 해요. 개미가 페로몬을 묻혀서 그린 길을 ‘냄새길’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개미는 집이 있는 곳은 집 입구에 콩무늬를 대거나 물방울을 떨어뜨려 표시하고, 자기 집 식구를 확인할 때에는 더듬이로 상대방의 몸을 두드려 냄새를 맡아요. 이렇게 개미는 냄새로 말한답니다. 또한 자신 체중의 20배 이상, 즉 개미 1마리가 개미 20마리를 훌쩍 들어 올린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힘이 세답니다. 이렇게 작은 곤충이라도 여러 가지 신기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 페로몬 자연놀이

무당벌레, 개미, 진딧물은 무슨 사이일까?

교보재를 활용한 이야기 들려주기.



이렇게 진딧물은 개미에게 달콤한 단물을 주고, 개미는 진딧물을 적에게서 보호해주는 서로 돕는 관계에 있어요. 공생이라고 해요. 종류가 다른 두 생물이 한곳에 살면서 서로에게 보탬이 되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듯이 작은 곤충도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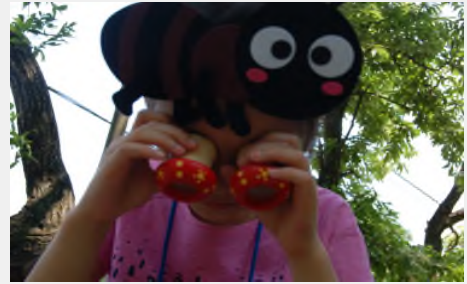
생태계에서의 곤충의 소중한 역할

[꽃가루가 묻어 있는 꿀벌 사진을 보여주며] 곤충이 꽃의 꿀을 먹고 꽃가루를 묻혀온 거예요. 이 꿀벌이 다른 꽃에 가서 또 꿀을 빨면 이 꽃가루들이 어떻게 될까? 그치요, 꽃가루가 꿀벌의 다리에 묻어서 다른 꽃으로 옮겨가요. 그러면 그 꽃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꿀벌은 꽃들을 결혼 시켜 예쁜 열매를 맺고 씨가 생기게 하지요.

[애벌레가 먹은 잎 관찰, 박각시 애벌레가 잎을 먹는 장면 보여주기] 박각시 애벌레는 고구마 잎을 먹어 치워 사람들은 해충이라고 하지만, 새끼를 키우고 있는 새들은 먹이가 많이 필요한데 애벌레는 고마운 먹이가 돼요. 박새, 쇠박새, 곤줄박이 등 새들의 대부분의 먹이가 나방의 애벌레예요. 또 나방은 낮보다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밤에 활동하는 새들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어서 이 숲이 건강하게 유지 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작은 곤충이 큰 숲을 건강하게 하는 고마운 생물이지요!

마무리

여러분 오늘 국립공원 백양골을 돌며, 이렇게 숲을 건강하게 해주는 작은 친구, 작지만 큰 도움을 주는 친구, 곤충에 대해 배워 봤어요. 이제 이렇게 작은 곤충친구를 앞으로, 소중히 여겨 주고, 함부로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어요. ‘생명존중’ 생명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들어보기) 네,, 우리 가까이 있는 생명을 잘 보살피는 거예요. 생명존중이란, 자신의 생명을 잘 지키고, 남의 생명 역시 잘 지키는 것, 고라니가 꺾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빠가 차를 천천히 모는 것, 생명 존중이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집 앞 화단에서 열심히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곤충들 더 예뻐 해주고 더 관심 가져 주고, 소중히 여겨 주세요!



▲ 곤충 역할 놀이



▲ 페로몬 자연놀이

재미있는 바위이야기

(친구와의 관계 더 돈독하게!)

활동장소	백양골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10~20명/해설사1명

- 활동목표**
- 자연환경 중 무생물도 지키고 소중히 해야 하는 것임을 안다.
 - 모둠 친구들과 함께 토양정화능력 실험을 하여 토양의 고마움을 안다.
 - 실험과정에서 의견을 모으며 '소통'의 가치를 안다.

- 관련교과**
- 학교 1-1 (통합교과)

- 준비물**
- 페트병(2L), 물, 테이프, 고무줄, 먹물

- 유의사항**
- 토양정화능력 실험 시 자연물을 꺾거나 따지 않고 주워서 활용하도록 주의
 - 학교 외부로 이동하여 숲으로 이동하므로 안전에 유의
 - 먹물을 사용하므로, 장난치지 않도록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1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위를 보고 나만의 이름 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는 바위의 모양 - 재미있는 바위를 찾아 이름을 지어주기 • 바위에서 어떻게 흙이 될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위가 흙이 되는 과정 - 바위와 흙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 모둠별 토양정화능력 실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굵기가 다른 돌과 흙, 낙엽을 모아 페트병에 넣기 ※ 모둠별 구성원이 잘 소통하여 흙, 낙엽 등을 넣어 만들 수 있도록 지도 - 먹물을 흘려보내어 얼마나 투명한 물이 되는지 확인 • 소통하는 방법 키우기! 칭찬 릴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었던 점, 힘들었던 점 - 활동 중 고마웠던 점 칭찬 이어가기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 활동내용 및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반별로 현수막 들고 기념사진 찍기 	5분

바위를 보고 나만의 이름 짓기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은 (뒤쪽 백학봉을 보며) 멀리서 보이는 백학봉으로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멋있는 산이예요. 내장산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는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매우 많답니다.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모양의 바위 사진을 보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맞춰보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을 붙인 것과 실제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해요.



백학봉



갯바위



거북바위

이렇게 가만히 서있는 바위들, 이 바위들은 1년, 2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예요, 수 억 년, 또는 수 십 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웅장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부내용

바위에서 어떻게 흙이 될까요?

(땅바닥을 가리키며) 여러분. 우리가 서있게 해주는 땅의 모래와 흙이 원래 바위였다면 믿을 수 있나요? 바위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비, 바람, 햇빛을 받으면 조금 씩, 조금 씩 약해지면서 부스러지게 된답니다. 또 식물 뿌리가 바위의 작은 틈을 파고 들어가 자라거나, 바위틈으로 스며든 물이 겨울에 얼면서 바위를 쪼개지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단단한 바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중요한 땅이 된답니다.



돌과 흙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땅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집을 지을 재료가 되는 아주 고마운 존재예요. 또 어떤 고마움을 주는지, 우리 실험 해볼게요.

모둠별 토양정화능력 실험하기

돌과 흙은 여러 가지 이로운 주를 주는 가운데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돌과 흙이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직접 실험을 해볼까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페트병을 보여주며) 빈 페트병에 굵기가 다른 돌과 흙 낙엽이 필요해요 우리 서로 역할을 맡아 역할에 해당하는 흙, 낙엽, 돌을 주워 와서 실험을 해 볼게요.



소통하는 방법 키우기! 칭찬 릴레이

우리가 넣은 먹물이 흙, 모래, 자갈 등을 타고 다 내려올 때까지 오늘 활동하면서 느꼈던 친구의 좋은 행동, 말 등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칭찬릴레이)

마무리

여러분 우리 오늘 다양하게 생긴 돌을 찾아보며 서로 어떤 이름을 지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돌과 흙이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주변 자연환경엔 숨을 쉬는 식물이나 동물들도 있지만, 이렇게 서 있는 바위, 돌, 흙 등 모두 우리에게 참 고맙고 우리가 지켜줘야 할 존재랍니다.

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친구들과 양보하고, 잘 들어주면서 의견을 맞추어가니, 이렇게 물이 깨끗하게 나오는 간이 정수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가 하는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며 오해 없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고, 실천해주는 것, 오늘 친구들과 소통하여 미션을 해결한 거예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소통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우리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전부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도장 꾸욱!



▲ 자갈-모래 크기순으로 모으기



▲ 토양정화능력 실험



▲ 토양층 해설 교보재

고마운 물 (깨끗한 물은 내가 지킨다!)

활동장소	남창계곡 주변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물의 중요성을 알고 물과 관련된 환경오염에 대해 알아본다.
-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물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기른다.
-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관련교과

- 학교 1-1 (통합교과 1~2학년 군)

준비물

- 물총놀이 교구재, 물에 사는 동물 카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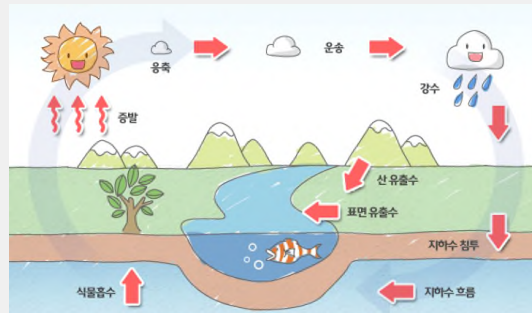
- 지도자의 효율적인 동선 계획으로 6개의 미션 중 한 곳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 학교 외부로 이동하므로 안전에 유의(물가 주변에서 장난치지 않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1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 미션 - 물과 관련된 상식 OX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여행(물의 순환) - 물은 정말 바빠(물의 역할) • 두 번째 미션 - 물이 없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 세 번째 미션 - 물소리 들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 네 번째 미션 - 물에 사는 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속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을까? - 물속생물카드 뒤집기 게임 • 다섯 번째 미션 - 물총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을 아끼는 행동과 낭비하는 행동 알아보기 - 물을 낭비하는 행동그림이 그려진 표적을 물총으로 맞추기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 활동내용 및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리 	5분

세부내용

첫 번째 미션 - 물과 관련된 상식 OX퀴즈

물은 끊임없이 세상을 돌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땅은 햇빛을 받으면 열을 흡수해서 뜨거워지는데요, 물은 뜨거워진 땅을 식혀줍니다. 바닷물은 마실 수 없지만 공기 중으로 증발되어 빗물이 되고, 강물이 되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죠. 비와 강물은 땅 위의 영양분을 씻어낸 뒤 그것을 바다로 옮깁니다. 영양분은 바다 속 생물들의 훌륭한 먹이가 되는데, 이것을 옮겨 주는 것도 물입니다. 지구상의 물질들은 물에 의해 순환되고 있고, 물에 의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을 생활용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이나, 학교에서 손을 씻거나 화장실에서 물을 내릴 때 사용하는 물도 생활용수에 포함되죠. 물건을 만들 때도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음료수뿐 아니라 청바지나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물이 이용됩니다.

우리 손이 더러워지면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물은 많은 것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물을 사용한다면 많은 물이 낭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간식으로 라면을 먹은 후, 남은 국물을 싱크대에 버리게 되는데 이때 버려지는 국물을 맑은 물과 섞어서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무려 1,410L(9400컵 분량)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션 - 물이 없다면

여러분은 비가 오지 않아 계곡의 바닥이 드러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와 같이 가뭄이 계속되면 강에 물이 마르게 되고 땅이 사막처럼 변하게 됩니다. 결국 식물도 물이 없어 죽게 되고, 땅은 더욱 황폐해지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이 된답니다.



세 번째 미션 - 물소리 들어보기

우리가 항상 가까이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던 무수천의 물소리를 눈을 감고 조용히 들어봅시다. 친구들과 떠들지 않고 조용히 주변소리에만 귀기울여봅시다. 그리고 물소리가 어땠는지 어떤 소리가 났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네 번째 미션 - 물에 사는 동물

여러분은 물속을 잠수해서 숨을 쉴 수 있나요? 물속은 육지와 아주 다르며 이런 환경에 적응한 많은 종류의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은 주로 아가미를 이용하여 물속에서 숨을 쉬고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몸으로 이동할 때 물의 저항을 적게 받으며 빠르게 헤엄칩니다. 우리가 다리로 걸어 다니며 이동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동을 할 때에는 지느러미를 이용하여 헤엄쳐서 이동합니다. 전복이나 다슬기 같은 것은 배발을 이용하여 몸을 바닥에 붙이고 기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곤충들도 삽니다. 바다, 호수, 하천 등의 물속에서 사는 곤충을 '수서 곤충'이라고 합니다. 수서 곤충 중에는 평생을 물속에서 생활하는 종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이나 유충, 번데기 및 성충의 일부만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평생을 물에서 사는 곤충에는 물방개, 물매암이가 있고 일부만 물속에서 생활하는 곤충에는 하루살이나 잠자리가 있습니다.

물속 그리고 물가주변에도 다양한 생명들이 있는 곳을 기억하기 위해 물에 사는 동물 사진을 뒤집어 똑같은 사진을 찾는 기억력게임을 해요.



다섯 번째 미션 - 물총놀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물을 깨끗하게 이용하기 위해 우리도 물을 깨끗하게 이용해야하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의 오염을 막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질오염의 70%정도가 생활하수와 쓰레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세제를 줄여서 사용하고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물총으로 물을 오염시키는 행동이 그려진 표적을 맞추어보며 다시 한 번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천하기로 해요.

OX퀴즈 예시)

1.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공룡의 오줌일 가능성이 있다.

정답 O

2.간식으로 먹은 라면국물을 버렸다. 라면국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물 10컵이면 충분하다.

정답 X

3. 하루에 물은 8컵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정답 O

마무리

여러분 오늘 물의 역할도 알아보고 물속에 사는 생물, 물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생태계 유지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생명들이 물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책임'이 필요해요. 여기서 '책임'이란 자연을 위해 여러분이 손 씻을 때나 목욕할 때 물을 절약하는 행동. 그리고 남이 버린 쓰레기일지라도 깨끗한 물을 위해 내가 주워오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우리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전부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도장 꾸욱!



▲ 물과 관련된 상식 OX 퀴즈



▲ 물총 놀이 과녁



▲ 물총 놀이



▲ 수생생물 이미지 카드

물 속 생물 이야기 (함께 배려해요)

활동장소 | 남창골 주변
 소요시간 | 80분
 참가대상 |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수서곤충을 관찰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물 속 생물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준비물

- 안대 10개

유의사항

- 이동 중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지도자의 효율적인 동선 고려
- 계곡에서 활동하므로, 미끄럼 등 안전사고에 유의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1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사는 곤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떻게 물속에서 살 수 있을까? - 다양하게 생긴 수서곤충 -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물속동물들 • 물이 얼마나 깨끗해야 물속동물들이 살 수 있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급수 - 물이 더러워진다면? • 우리가 가꾸고 지키는 남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창골 주변 환경정화 - 환경 정화 후 소감 공유하기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 활동내용 및 '배려'에 대한 개념 정리 • 반별 현수막 들고 기념사진 찍기 	5분

물에 사는 곤충



곤충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땅에서도 볼 수 있고 하늘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물속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가까이 있는 계곡에서도 많은 곤충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 중에서는 평생을 물속에서 살아가는 곤충들도 있고, 알이나 애벌레 때에만 물속에서 지내다가 어른벌레가 되면 물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곤충들도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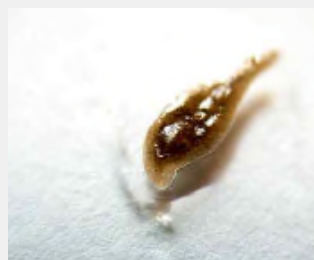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데, 곤충은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쉴까요? 수서곤충이 숨을 쉬는 방법은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게아제비, 장구애비, 물자라 등은 빨대 같은 호흡관을 물 밖으로 내어 숨을 쉬어요. 물방개와 같은 딱정벌레류는 날개 밑에 공기방울을 저장하여 잠수합니다. 마치 사람이 잠수할 때 등에 산소통을 매는 것 같아요.

세부내용



물에 사는 곤충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주로 물풀을 먹고 사는 초식곤충들이 있는 반면, 물고기 등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곤충이 있습니다.

잠자리애벌레는 애벌레일 때에만 물에 살면서, 올챙이나 물고기 등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 물방개나 물장군 역시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곤충이에요. 이 곤충들이 육식을 한다니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름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모기의 애벌레들까지 잡아먹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물속에는 수서곤충 이외에도 플라나리아, 거머리도 있으며, 물벼룩과 옆새우 같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해야 물속동물들이 살 수 있을까?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 사는 동물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서 물의 깨끗한 정도에 따라 어떤 물속동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요.

위의 표에 있는 강도래류나 일부 잠자리에벌레들은 1급수, 2급수와 같은 깨끗한 물에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물이 오염되어 1급수, 2급수가 4급수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1급수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모든 물속동물들이 살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 물을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꾸고 지키는 남창골

지난번 계곡 주변을 걸었을 때, 물가에 쓰레기를 본 적이 있나요? 남창골은 장성에서 깨끗한 하천이지만 일부 탐방객이 하천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주변의 쓰레기를 깨끗이 줍는다면 물속 생물들도 편안히 생활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청소해볼까요?

마무리

여러분 우리 오늘 물에 사는 수서곤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물이 오염되는 정도마다 물속 생물이 다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우리도 깨끗한 물에서 놀기를 원하듯, 깨끗한 물에서만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어요. 오늘 물속에서 다른 생물과 함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쓰레기를 주웠듯, 물 속 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가 배려심을 가져야 자연의 많은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답니다. 오늘 쓰레기를 주워보니 어땠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분에게 햇빛을 쬐어주기 위해 햇빛이 드는 곳으로 옮겨주는 것, 등지에 새끼를 키우는 어미새 앞에서는 떠들지 않고 조용히 노는 것이 바로 배려랍니다. 또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위해 걸음을 천천히 걷는 것.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 어디서나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우리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전부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도장 꾸욱!



▲ 수서 생물 채집



▲ 수서 생물 관찰

▲ 수생생물 해설 교보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요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요)

활동장소	백양골 주변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협동을 위한 개미와 꿀벌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친구들의 중요성을 느끼고, 혼자보다 함께할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준비물

- 일회용 스포이드, 투명 컵

유의사항

- 이동 중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지도자의 효율적인 동선 고려
- 놀이 중 장난치지 않도록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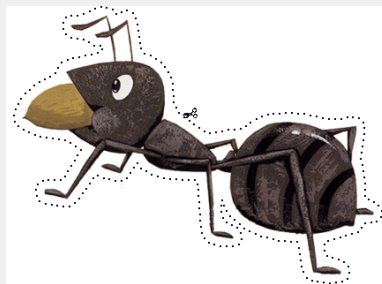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지난학기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 계절의 변화 이야기하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미가 살아가는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 서로서로 도와줘요 - (놀이)개미처럼 행동하며 이동하기 • 꿀벌이 살아가는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몸짓으로 표현하기 - 춤을 추며 소통하는 꿀벌 - 꿀 한통이 모이기까지 - (놀이)꿀벌처럼 행동하며 꽃꿀 모으기 • 개미와 꿀벌이 없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후 소감 공유하기 - 이로움을 주는 개미와 꿀벌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 활동내용 및 '협동'에 대한 개념 정리 	5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방학 보냈나요? 이번 학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 곤충을 알고 있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대답 들은 후) 네 정말 많은 곤충을 알고 있군요? 그런데 수많은 곤충들 중에서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어떤 곤충일까요? (대답 들은 후) 바로 개미와 꿀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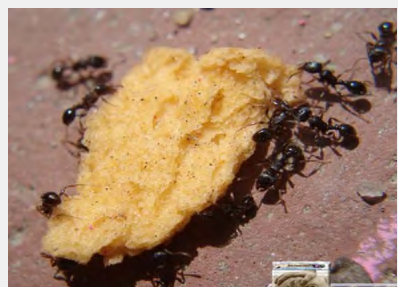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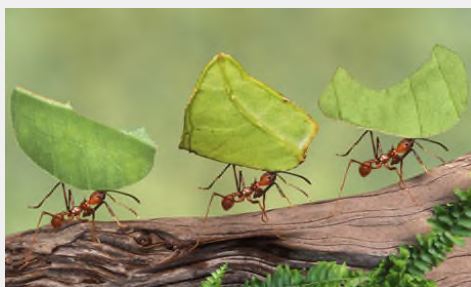
오늘은 개미와 꿀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보고 서로 도와가며 사는 '협동'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미가 살아가는 법



세부내용

개미의 세계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일개미, 수개미, 병정개미로 나누어진답니다. 일개미는 개미집을 만들고 먹이를 물어오는 역할을 해요. 수개미는 짝짓기를 담당하며, 병정개미는 적이 나타났을 때 싸우는 일을 하고, 여왕개미는 평생 알을 낳는 일을 해요. 하지만 일개미의 도움 없이는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알에서 나오는 애벌레들을 혼자 힘으로는 기를 수 없으니까요. 개미의 세계에서는 가족을 많이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힘이 매우 센 곤충에 속해요. 자기 몸무게의 20배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지요. 그러나 먹이가 너무 무겁고 커서 혼자 옮기기 힘들 땐 친구 일개미들을 불러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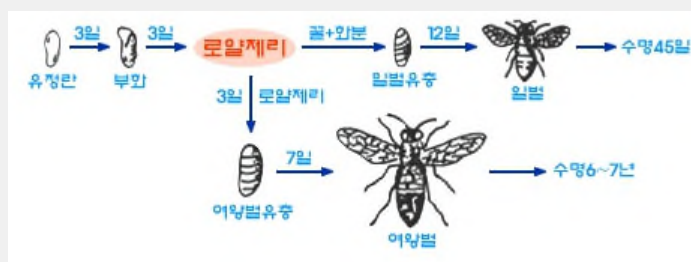


이 사진은 무엇을 하는 모습일까요? 물에 빠진 개미를 다른 개미가 도와주고 있지요? 우리 직접 인간 띠를 만들어 다른 친구를 구출해보는 놀이도 해보고, 먹이를 운반하면서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놀이를 해봐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을 거예요.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불편함도 있겠죠. 같은 장난감을 놓고 싸우거나, 보고 싶은 책을 다른 친구가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도와준다면 남은 1학년 생활을 서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꿀벌이 살아가는 법



벌집 속에는 알을 낳아주는 여왕벌, 짹짹기를 하는 수벌, 먹이를 찾아오고 벌집을 관리하는 일벌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 종류의 벌이 처음에는 똑같은 하나의 알로 태어나지만 먹는 것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게 돼요.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처음 3일간 모두 일벌의 침샘에서 나오는 로열젤리를 먹고 그 이후에도 3일간 로열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되고, 꿀과 꽃가루를 먹으면 일벌이 돼요.



한 벌집 안에서만 수천마리의 일벌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일벌들은 우리처럼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일벌들은 소통할까요? 바로 춤을 추는 동작으로 소통한답니다. 우리도 잠깐 말없이 카드에 적힌 행동 및 사물을 몸짓으로 표현해 봐요. 과연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꿀 좋아하나요? 워낙 달콤해서 싫어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꿀을 맛있게 먹지만 이 꿀을 얻기 위해 꿀벌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고요? 벌은 하루에 40~50번 외출하여 꽃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한번에 30~60mg(우리 눈에 안보일 정도로 작음)의 꽃 꿀을 운반하는데, 벌 1마리가 꿀 1kg을 모으기 위해선 5,400,000(540만)송이의 꽃을 찾아다녀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 직접 꿀벌이 되어 꽃에 있는 옮겨 담아보는 놀이를 하면서 꿀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봐요.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개미와 꿀벌의 입장이 되어 놀이를 해보니 어땠나요? 여러분이라면 혼자서 개미와 꿀벌의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곤충이지만 서로 하나가되어 도와주어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꿀벌과 개미는 공통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바로 식물에게도 이로움을 준답니다. 개미는 먹이로 가져간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해주고, 꿀벌은 꽃가루를 옮겨주어 식물의 짹짹기를 도와줘요. 지구상에 있는 절반 이상의 식물이 꿀벌의 도움을 받아 짹짹기를 한다고 해요. 즉 꿀벌이 지구상에 사라지면 우리 식탁에서 채소와 과일은 영영 볼 수 없게 된답니다.



마무리

오늘 개미와 꿀벌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나요? 바로 협동이에요. 협동이란 혼자서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헤 내는 것이에요. 교실에서 정리정돈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빨리 정돈할 수 있겠지요? 협동의 뜻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개미와 꿀벌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개미와 꿀벌이 이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지요? 그럼 우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오늘 약속해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전부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도장 꾸욱!



▲ 꽃꿀 모으기 놀이



▲ 꽃꿀 모으기 놀이



▲ 협동 놀이(탱탱볼 튕기기)

동물들의 자녀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활동장소	백양골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황제펭귄, 에사키뿔노린재, 도토리거위벌레 등 동물들의 알 돌보기와 까마귀의 효도에 대해 알아본다.
- 동물들의 자식사랑을 통해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준비물

- 모형 알, 게임용 자루

유의사항

- 지도자 간에 효율적인 동선에 대해 미리 협의한다.
- 놀이 중 규칙을 지키고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숲놀이 중 모기 등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바지 입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지난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나누기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제펭귄 아빠의 알 돌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극이 얼마나 추운지 아나요? - 아빠 펭귄은 추위 속에서 약 6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알을 지킨대요. - (놀이)황제펭귄처럼 행동하며 이동하기 - 물자라도 아빠가 알들을 등에 업고 다닌대요. • 거위벌레의 알 돌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위벌레는 조그마한 알을 나뭇잎으로 꾀꾀 싸요. - (놀이)거위벌레가 되어 알을 나뭇잎으로 꾀꾀 싸 봅시다. - 도토리 거위벌레는 다른 방법으로 알을 보호한대요. - 도토리 거위벌레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 우리는 누구의 보살핌으로 자라고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후 소감 공유하기 - 까마귀의 효도에 대해 알아보기 -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많은 수고를 하신답니다. -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자!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내용 및 '효도'에 대한 개념 정리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5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가을이 되어 혹시 감기라도 걸린 친구는 없나요? (대답)

친구들 남극에 대해 들어 본 적 있나요? 한번 말해볼까요? (대답 들은 후) 네 맞아요. 남극은 지구 맨 밑에 있는 얼음덩어리 땅 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아나요? 일 년 내내 겨울이래요. 우리나라 제일 추울 때보다 훨씬 훨씬 추운 곳이에요 (대답, 웅성웅성) 그런데 이런 추운 곳에도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대답 들은 후) 네 잘 알고 있네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추운 남극에도 펭귄, 고래, 바다표범, 물개, 바다제비, 갈매기 등이 살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펭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펭귄 좋아하나요? 왜 좋아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면 펭귄이 더 멋져 보일 거예요.

황제펭귄이라고 들어 본 사람, 손! 와 많이 알고 있네요.(처음 들어봐요?)

황제펭귄은 펭귄 중에 가장 커요. 키가 122센티미터에 몸무게는 22~37킬로그램 이니까 여러분 정도 크기네요. 여러분 보다 조금 더 크거나. 황제펭귄은 엄마 펭귄이 아빠펭귄 발 위에 알을 낳고 아빠펭귄이 따뜻하게 보호한대요. 아까 남극이 얼마나 추운지 말해줬죠? 그 추운 날씨에 아빠들이 모여서 6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발 등의 알이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생활한답니다. 여러분도 아빠펭귄처럼 발등 위에 알을 잘 돌보는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세부내용

황제펭귄 알 보호방법



어떤가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알을 떨어뜨릴까봐 조심조심하게 되죠? 아빠 펭귄이 일을 63일 동안 꼼짝 않고 한답니다. 그 추운 남극에서 말입니

다. 얼마나 힘들지 알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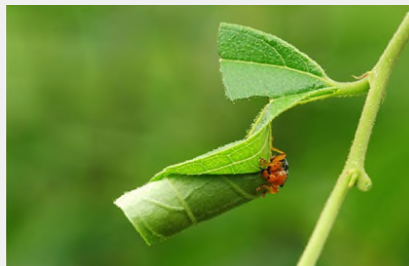
그런데 곤충 중에도 아빠뽕처럼 아빠가 알을 등에 업고 다니는 곤충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저~번 시간 우리 수서생물 시간에 보여준 것 같은데? 물자라 기억나나요?

네, 물자라 아빠는 알에서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알들을 등에 업고 헤엄쳐서 다닌답니다.



다른 생물들이 알을 먹어 버릴까봐 그런 거래요. 아빠물자라도 엄청 힘들겠죠? 이처럼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한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알을 보호하는 다른 생물들을 알아보기로 해요.



짜잔 이런 모습의 이 나뭇잎을 본적 있나요? 누가 이렇게 돌돌 말아놨을까요? 선생님은 아니에요. 네 곤충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새끼손톱보다도 작은 거위벌레라는 곤충이 잎을 이용해서 알을 푹푹 싸 놓은 것 이예요. 숨씨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푹푹 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이 숲에서 지켜봤는데 약 2시간이 걸려요. 조그만 곤충이 킁킁 2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 곤충의 수고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 곤충처럼 알을 나뭇잎으로 한번 싸 볼가요?

거위벌레가 하는 순서대로 따라해 봐요. 먼저 적당한 나뭇잎을 찾는다. 둘째 가지 쪽 나뭇잎을 살짝 자른다. 셋째 잎맥을 따라 꺾꺾 접으면서 아래위로 5~6번 오르내린다. 넷째 나뭇잎 끝에 알을 넣고 돌돌 싸 올라간다. 잘 되나요? 꺾꺾 눌러서 꼼꼼하게 싸야 풀어지지 않겠죠? 와~ 모두 잘 했네요. 이렇게 싸두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고 힘을 내서 주변 낙엽 밑으로 들어가서 무럭무럭 자라서 다음해에 어른벌레로 자라서 다

시 자신의 알을 이렇게 낳고 보호한답니다.

그런데 같은 거위벌레 중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알을 보호하는 곤충이 있답니다. 요즘 한창 열심히 알을 낳고 작업을 하는 도토리거위벌레라는 곤충이랍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도토리거위벌레는 도토리에 알을 낳고 가지를 싹둑 잘라서 땅으로 떨어뜨린답니다.



지금 산에 가면 이렇게 도토리와 나뭇잎이 함께 싹둑 잘려 떨어져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뒷산으로 찾아나서 볼까요?

산에 갈 때는 뛰지 말고, 길이 좁으니 밀치지 말고 차례차례 조심조심. 출발!

까마귀의 효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새로 알려 졌지요? 왜 그랬을까요?

소리가 아기울음소리 처럼 들리고 시체를 먹는다고 해서 흉조로 알려졌으나 실은 아주오래전 고구려 시대에는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어미가 새끼를 다 기르고 나면 어미가 잠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이때 새끼들이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해서 효도하는 새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누구의 보살핌으로 자라고 있나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에는 거위벌레처럼 이불에 뽀뽀 싸서 보호해 주고, 먹여주고 닦아주고, 또 어디 갈 때나 잠이 와서 칭얼거리면 아빠물자라처럼 업어주고, 다칠까봐 걱정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죠? (대답) 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아까 펭귄도 되어보고 거위벌레도 되어봤는데 어땠나요? (대답) 맞아요. 힘들었죠? 다칠까 조심조심 마구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꼭꼭 싸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살피신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아빠황제펭귄, 아빠물자라, 거위벌레, 도토리거위벌레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우리를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핌니다. 우리는 이런 고마움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할 일 뭐죠? (대답)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까마귀처럼 효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꼭 안아드리기,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 잘 할 수 있죠?

마음을 가꿔요 (믿음을 주는 사람)

활동장소	학교 뒷산 및 운동장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다양한 색깔의 단풍잎을 찾아보고 낙엽의 역할도 알아본다.
- 꾸미기 활동 및 이솝우화를 통해 정직함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준비물

- 이솝 우화, 자연물 빙고판, 새 그림 도안

유의사항

- 지도자 간에 효율적인 동선 상의
- 놀이 중 장난치지 않도록 유의
- 옷 따뜻하게 입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확인 및 자연환경해설사와의 만남 - 지난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및 계절인사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록달록 가을단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뭇잎이 변했어요. - 왜 색이 변할까요? - 왜? 낙엽이 떨어질까요? - 산책하며 자연물 모으기 • 자연물 빙고 및 새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 중 모아온 다양한 자연물로 색깔빙고 - 산책 중 모아온 다양한 자연물로 모양빙고. - 산책 중 모아온 다양한 자연물로 새 꾸미기 • 이솝우화 - 멋을 낸 까마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을 속이지 말자! - 나를 사랑하자!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 활동내용 및 '정직'에 대한 개념 정리 • 반별 현수막 들고 기념사진 찍기 	5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이지요? 추석에 즐겁게 지냈나요?
부모님이랑 연휴에 좋은데 여행 많이 했나요? 환절기라 혹시 감기라도
걸린 친구는 없나요? (대답)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나뭇잎이 어떻게 변했나요? (알록달록)
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여러 가지 색으로 변했죠? 왜 그런 걸까요?
(대답) 네,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공기가 많이 건조해져요. 그러면
나무가 말라죽어버려요. 왜냐면 잎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잎을 떨어뜨려서 나무가 말라 죽는 일이 없도록 준비 하는 것 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가을 숲을 산책하면서 떨어진 여러 가지 나뭇잎이나
열매 깍지 등을 수집해서 학교로 돌아와서 재미있는 놀이랑 만들기를 할
거예요.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이랑 산책하면서 예쁜 자연물을 한 사람당
10개씩 모아 와야 해요. 그래야 재미있는 놀이와 꾸미기를 할 수 있어요.
준비됐나요? 그럼 출발!!

가을 숲과 자연물

세부내용



자연물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나뭇잎, 솔방울, 나뭇가지, 도토리 깍지
같은 것들이 있지요? 플라스틱이나 유리조각 이런 건 안 되는 것 다 알죠?
네 한사람에 10개씩 종류별로 다양하게 모으는 거예요

자연물 빙고와 새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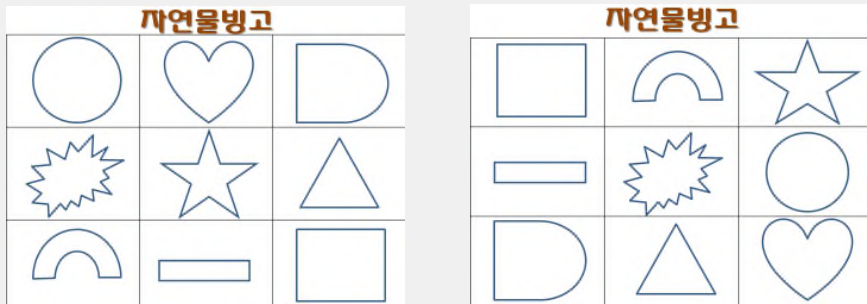
산책 즐거웠나요? 무엇을 보았나요? (대답)



자 여러분이 모아온 자연물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그럼 한 팀에 20개의 자연물이 있죠? 그럼 선생님이 주는 색깔 빙고판에 비슷한 색을 찾아서 놀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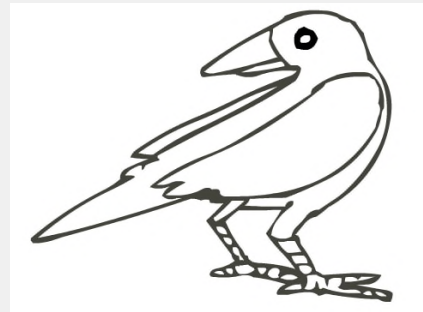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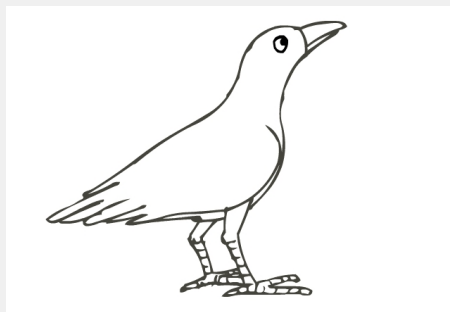
다 했나요? 자 가로든 세로든 한 줄이 완성된 팀 손들어보세요. 와 여러 팀이 성공했네요.

그럼 두 줄이 완성된 팀은? 와 두 팀이나 있네요. 그럼 세 줄이 완성된 팀은 없나요? 네 두 줄이 완성된 팀이 1등이네요. 모두 박수!!



그럼 빙고판을 뒤로 돌려서 모양 빙고를 해봅시다. 방법은 색깔 때랑 똑같아요. 모두 다 찾았나요? 네 한 줄 완성, 손! 와 여섯 팀 모두 성공이네요. 그럼 두 줄 완성, 손! 와 세 팀이나 성공했네요. 그럼 세 줄 완성? 손! 와 이번에는 세 줄까지 완성한 팀이 한 팀 나왔네요. 그럼 네 줄? 없네요. 네 자연에는 참 다양한 모양과 색깔이 있죠? 이 모두는 저마다의 색깔과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모아온 자연물로 새 꾸미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새 그림을 여러분이 모아온 자연물로 예쁘게 꾸며보세요. 알록달록 예쁘게 잘 꾸며주셨네요.

친구들을 속이다가 창피당한 까마귀



그런데 주워온 깃털로 자신을 꾸며서 잘난 척 뽐내다가 창피당한 새가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잘 들어주세요. 『옛날에 숲속에 아주 다양한 새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 공작새, 비둘기, 까치, 두루미, 부엉이 등등... 그중에서 까마귀는 항상 자신의 모습에 불만이었어요. 공작은 깃털도 화려하고 부엉이는 밤눈도 밝고, 피꼬리는 노래도 잘하는데 내 모습은 시꺼먼 숲같이 검고, 목소리는 걸쭉하니 까악까악 대고, 부끄러워 밤에 다니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 낮에만 다녀야하고... 정말 내 모습이 싫어~ 잉잉잉!!!』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예쁜 새 뽑는 대회가 열렸어요. 모두들 웅덩이에서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빗질도 하고 열매에서 기름도 짜서 바르고 열심히 자신을 꾸몄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모습에 불만이 많았던 까마귀는 깨끗하게 씻어놔야 까만색이지 뭐~ 흥~ 하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떨어진 여러 새들의 깃털을 발견했어요. 공작의 깃털 세 개, 피꼬리의 노란 깃 들, 까치의 하얀 깃 셋.. 등 이것저것 주워 모아 자신에게 꽂아보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근사해보였어요. 지금까지 이런 새는 본 적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회에 참석했어요. 이웃나라에서 온 ‘꾸까’라고 우기면서 말 이에요.

모두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알록달록 예쁜 꾸까(까마귀)를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센 바람이 불어와서 까마귀가 장식으로 꽂아놓은 깃털을 다 날려버렸어요. 모두 깜짝 놀라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보니 이 깃털은 공작의 것이잖아? 아니 이건 비둘기 너의 깃털이네? 하면서 말 이에요. 아니 까마귀가 우리를 속였잖아? 나쁜 녀석 용서할 수 없어. 마구 소리쳤어요.

부끄러운 까마귀는 울면서 혼자 깊은 숲속 웅덩이로 갔어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

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울다 지친 까마귀는 웅덩이에 목욕을 하고 깃털을 곱게 빗어보았어요. 햇빛에 반사된 까마귀의 깃털은 반짝반짝 무지갯빛을 띄면서 반짝였어요. 이제부터 불평만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잘 가꾸어 야지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숲속 친구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울면서 숲속으로 간 까마귀가 걱정이 된 숲속 친구들이 웅달샘으로 까마귀를 찾아왔어요. 친구들을 본 까마귀는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속여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물론 친구들도 까마귀를 용서해주고 못생겼다고 놀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답니다.」

마무리

오늘 가을 단풍 구경하고 알록달록 여러 가지 모양의 나뭇잎이랑 열매뚜껑, 나뭇가지 등으로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꾸미기도 해보았어요. 재미있었나요? 마지막에 까마귀는 어떤 기분일까요? 남을 속이고 잘난 척 하다가 창피당하고 오히려 친구들도 잃게 생겼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잘 못 했을 때는 친구들한테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용서해 줄 거예요. 이세상의 생물들, 사람까지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과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나뭇잎은 빨강게 물들고 어떤 나뭇잎은 노랑게, 어떤 것은 변하지 않고 초록으로 지내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 다른 얼굴, 머리색, 생각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조금 다르다고 창피해 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싫어할 일도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며 서로 정직하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과 새끼손가락 걸로 약속! 잘 할 수 있죠?



▲ 자연물로 새 꾸미기



▲ 자연물 빙고

내 특별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소중한 생명 끝까지 책임져요!)

활동장소	학교 뒷산 및 운동장
소요시간	80분
참가대상	초등학교 1~6학년
참가인원	10~20명/해설사1명

활동목표

- 애착인형 소개하기를 통해 소중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함.
- 반려식물 기르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준비물

- 다육식물, 화분제작용 도예토, 원예용 흙, 네임펜, 물티슈
- 지도자 간에 효율적인 동선 상의

유의사항

- 놀이 중 장난치지 않도록 유의
- 옷 따뜻하게 입기

단계	교육내용	교육시간
도입 (생각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시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및 계절인사 - 안전교육(활동 시 지켜야할 수칙 공유) 	5분
전개 (놀이 및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특별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착인형 이야기 - 하루아침에 버려진다면? • 버려진 개와 고양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진 개와 고양이 이야기 - 키우다 버린 붉은귀거북, 햄스터 등이 자연 생태계에 준 피해 - 책임질 수 없으면 키우지 말자! - 내가 키우는 동·식물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자 •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예토로 화분 만들고 꾸미기 - 예쁘게 만든 화분에 다육식물 심기 - 다육식물 이름 지어서 이름표 달아주기 -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키우기 다짐 • 10차시까지 함께했던 경험 공유,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부터 10차시까지 약속했던 부분 되짚어보기 	70분
마무리 (생각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주변 정리, 손 씻기 • 활동내용 및 '책임'에 대한 개념 정리 • 반별 현수막 들고 기념사진 찍기 	5분

세부내용	<p>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나뭇잎도 울긋불긋 변해서 떨어졌네요. 감기 걸린 친구들은 없나요? (대답)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계절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모두 건강조심하세요.</p> <p>특별한 내 애착인형 (생각 열기)</p> <p>짜잔!!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인형을 소개할거예요. 이 인형의 이름은 어흥이에요. 얼룩무늬가 예쁘고 허리가 날씬하고 털이 부드러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친구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친구를 갖고</p>
------	--

있나요? (대답) 네. 그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해 줄래요? 간혹 인형이 아니라도 정말 좋아하는 이불, 베개 등 잠을 잘 때 없으면 허전해서 잠이 잘 오지 않는 이런 인형이나 물건이 있는 사람 있나요?

이런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던 인형은 또 얼마나 슬플까요?

생명이 없는 인형이나 이불도 한번 사랑하면 이렇게 없어진다면 슬픈데 개나 고양이 같은 살아있는 동물들은 어떨까요? 나와 뛰어놀던 강아지가

하루아침에 내 곁에 없으면 상상하기도 힘들 거예요. 또 강아지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나를 돌봐주고 예뻐해 주던 주인이 없어지고 길거리에

혼자 있다면 말 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울까요?



버려진 동물들

유기견이라고 들어보았나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키우다 버린 강아지들을 말하는 것 이에요.

서울시 유기견 관련 출동 현황 (단위: 건)



사고 유형별 현황 2014~2017년누계 (단위: 건)



[출처] - 국민일보

『유기견에 의해 시민들이 물리는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5년 5건에 불과했던 물림 사고는 지난해 30건으로 늘었고 올해(10월 기준) 2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유기견이 위협한다는 신고도 2015년 343건, 2016년 474건, 올해 3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서울에서 포획된 유기견 추이 (단위: 마리)



<자료: 서울시>

특히 버려진 강아지들이 북한산 등으로 들어와서 작은 동물들과 새들을 잡아 먹고 새알도 꺼내먹으면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답니다. 또 여러 마리가 다니며 탐방객에게 무서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산국립공원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뿐 아니라 고양이 또한 많이 돌아다니는데 고양이는 나무도 잘 타고 올라가서 특히 새알 등을 먹습니다. 이들 버려진 동물들은 예방접종 등이 잘 되지 않아서 만약 사람을 물기라도 하면 광견병이라는 병을 옮길 수도 있어요. 만약 산에서 강아지를 만나면 귀엽다고 다가가면 큰 일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귀엽다고 강아지, 고양이 등을 집에 데리고 와서 밥 챙기고, 똥을 치우고, 산책 시켜주고, 씻기고 등 여러 가지로 보살펴야하는 일이 많아지면 힘들어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 고양이 뿐 아니라 거북이 특히 붉은귀거북, 귀엽다고 키우던 햄

스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어서 자연환경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목욕 시키고, 밥 챙기고 다 할 테니 강아지 사 달라고 조른 적 없나요? 한 생명을 키우는 일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처음 키우기로 결심할 때 신중하게 많이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고, 건강하게 잘 키워주시는 것처럼 애완동물도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각오가 되어있을 때에만 키워야합니다.

반려식물 화분꾸미기(활동)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고도 한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개, 고양이, 새 따위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많이 한답니다. 반려식물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물보다는 돌아다니지 않고 매일 밥 달라고 조르지 않고 똥도 안 싸니, 키우기 조금 더 쉽겠죠? 그래도 제때 물도 주고 많이 크면 화분도 갈아주고 양지 바른 곳으로 옮겨주는 정도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다육식물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식물을 심을 화분은 여러분이 예쁘게 만들어야 해요.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흙으로 화분을 예쁘게 빚어보세요.(화분 만들기 활동) 화분 만들기가 끝난 친구는 선생님께 와서 다육식물 한그루씩 받아가세요. 비닐 화분에서 다육식물을 빼내서 직접 만든 화분에 옮겨 심고 흙도 채워 넣어주세요. 옮겨 심기까지 다 됐나요?

화분에 옮겨심기까지 다 끝난 친구는 자신의 식물에 이름을 지어서 이름표에 네임펜으로 써주세요. 네 여기 친구는 '콩순이' 라 지었네요. 여기 친구는 '뽕족이' 라고 지었군요.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니 여러분의 다육식물이 더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나요?

집에 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되고, 그리고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창가나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해요.

마무리

오늘 나만의 특별한 인형도 소개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동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다육식물 화분도 만들었어요. 내가 직접 화분도 만들어 옮겨 심고 이름까지 지어 주니 더욱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죠? 집

에 가져가서 잘 키울 수 있겠죠? 좀 전에 설명한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주면 잘 자라요. 그리고 다육식물은 햇빛을 아주 많이 좋아하니까 밝은 곳에 두어야 해요.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 즉 반려동물은 사랑하면서 책임지고 끝까지 키워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만든 화분도 여러분이 잘 보살펴 줄 거죠? 그리고 1차시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약속’, ‘책임’, ‘존중’, ‘소통’, ‘배려’, ‘협동’, ‘효’, ‘정직’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재미있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과도 서로 도우면서 잘 지낼 수 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선생님도 참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경험 나누기)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항상 밝은 미소 잃지 않는 어린이가 되세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안녕!!



▲ 다육이 화분 만들기

발행일	2018. 02.
수정	김순정
발행인	
발행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로 1116(약수리)
홈페이지	
